

머니투데이

05월 22일 024면

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

이용정보 원스톱 제공기로

정부는 7개 부처가 제공하는 국토의 이용 및 보전정보를 '국토통합정보시스템'으로 통합, 국민들에게 원스톱(One-stop)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건설교통부가 21일 밝혔다.

이를 위해 현재 용도지역·지구 등 토지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건교부의 토지종합정보망에 △농지정보(농림부) △환경정보(환경부) △갯벌정보(해수부) △산림정보(산림청) △문화재정보(문화재청) 등을 통합하는 작업을 3단계에 걸쳐 2011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. 국토통합정보시스템은 토지구제 정보 외에 △국토환경성평가지도 △생태자연도 △임상도 등의 환경·산림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.

건교부 관계자는 "시스템이 구축되면 토지구제정보, 국토환경성 평가지도, 생태자연도, 임상도 등 정보가 원스톱으로 상세히 제공돼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"고 말했다.

원정호 기자 meetho@